



신록도 웃음도...눈부신 5월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광주 북구
문화동 한 산책로에서 베트남에서 시
집 온 레미티향씨가 생후 10개월 된 아들 박건양군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
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기업들 광양항 두고 먼 부산항 이용하는 까닭은?

中企 소량화물 광양“NO” 부산“OK” 수출·입 불균형 선사들 기항 기피 운항 횟수 적어 대기시간 더 길어

#1. 평동산단 내 수출업체 A사. 수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회사는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거래도 부정기적이어서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에 운송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 포워더는 가까운 광양항을 두고 먼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다.

#2. 오후 2시 광양항 동쪽배후단지 항만으로 국제물류센터 제지화물이 든 컨테이너 4대(TEU)가 선적을 앞두고 있었다. 3000평 가량 되는 물류창고에는 화물이 3분의 1만 채워져 있었다. 물량이 적은 탓에 지게차 2대와 10여명만이 일하고 있었다.

국제물류주선업체들은 왜 가까운 광양항을 두고 먼 부산항을 이용하는 걸

까? 부산항·인천항은 북적이는데 광양항은 왜 한산할까? <관련기사 3면> 물류 전문가들은 광양항에서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컨테이너 1개를 채우기 위해 부족한 소량화물)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양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항로가 단순하고 선박의 기항 횟수가 적은 탓”이라며 “이 때문에 수출물량이 많지 않은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은 광양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속버스로 예를 들면 터미널(광

양항)은 크게 지어놨는데 운행하는 버스회사(선사)가 별로 없어 운행 노선과 횟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광양항은 1주일에 78항차를 운항하는 반면 부산항은 323항차를 운항해 부산항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운행횟수가 적다보니 화물을 인도하는 기간이 부산항보다 24시간 가량 더 걸린다.

그렇다면 선사들은 왜 광양항 기항을 꺼리는 걸까?

선사들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의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광양항은 여수산단과 광주 하남·평동산단에서 나오는 수출화물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화물보다 3배

가량 많다. 수입화물은 대부분 배후 소비도시가 있는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빈 컨테이너를 광주와 여수 등으로 보내 수출화물을싣고 온다. 이 비용은 선사들이 모두 떠안고 있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빈 컨테이너 운용은 내륙운송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수출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같은 문제들의 해법으로 LCL화물 유통을 추진 중이다.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물의 집적화로 FCL화물(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해서 수송되는 대량화물)의 주가 유치와 선사 유치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전환하기 위해서다.

LCL화물은 FCL화물보다 부가가치가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LCL화물은 선사·하역사·보세창고·관세사·운송사·노무 공급에 이르기까지 2차 효과가 있고 보관기간도 짧아 창고 회전율이 높다”며 “FCL화물 대비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탄소배출권거래소 전남 유치 재가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과 부산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3일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활성화 배분 등이 담길 시행령(대통령령) 작업을 위한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한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대해서는 기업들끼리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오는 2015년부터 도입된다.

또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곳인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거래 규모는 연간 2조원대, 고용창출은 1500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는 전남과 부산이 뛰어들었다.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서게 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이 달라 유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전력거래소(KPX)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는 금융시스템인 만큼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KRX)가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탄소배출을 산업·발전분야로 보고 KPX에 설치할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여겨 KRX에 설치할 것인지가 입지 선정의 관건이다.

전남도는 여수화학단지, 광양제철 등 도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인 20%에 달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남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 실물 거래가 이뤄지는 전력거래소나 기후거래소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치한 점 등을 감안

거래제 법률안 국회통과
年 2조원...부산과 2파전

하면 전남에 유치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입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될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시행령을 올 연말에 제정할 계획이다.

/오향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학 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사계절 진초록 카펫이 당신의 소유

새벽, 산새들의 지저귐 속에 깨어나는
王家(dynasty)의 정원

저마다의 매력을 뿐내며
최고의 샷에 응답하는 스물일곱개의 헐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코스는
당신의 발길을 기다리는 진초록 카펫

이 모든것이 이젠 당신의 소유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VIP 7차 회원모집

■ 회원특전 선택 01 ■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 1. 주 말 부 킹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2. 정 회 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3. 지명회원1인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4.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 할인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년 24회)

■ 회원특전 선택 02 ■ 분양금액 1억 7천 5백만원

- 1. 주 말 부 킹 – 월 4회(부킹자 정회원)
- 2. 정회원 1명 – 그린피 면제(주중/주말)
- 3.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카드 소지자 그린피 면제(2매 합계 총 84회)
- 4. 정회원 및 동반자 3인 골프텔 40% 할인
- 잔여시간 정회원 추천인 우선부킹 가능
- 동반자 3인 준회원대우(주중/주말, 년 50회)

■ 코스규모 : 27홀, Par 108(전장 : 9,635m)

■ 모집인원 : 선착순 30구좌

■ 모집기간 : 2012년 5월 31일까지

■ 수납은행 : 광주은행 727-127-005215

*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함평다이너스티C.C

(단위 : 천원)

구 분

분 양 가

남 입 방 법

계 약 금

개 인

175,000

17,500

157,500

법 인

350,000

35,000

315,000

납 입 시 기

계 약 시

계 약 후 1 개 월 내

■ 구비서류

- 입회신청서(소정양식).....1부
- 사진.....3매
- 개인/주민등록증.....1매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증.....각 1매

■ 가입 안내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주)광주일보사 Tel. 062-227-9600 Fax. 062-227-9500

■ 지사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번지 함평다이너스티CC Tel. 061-320-7777 Fax. 061-320-7710